

5. Why the Church?

2023.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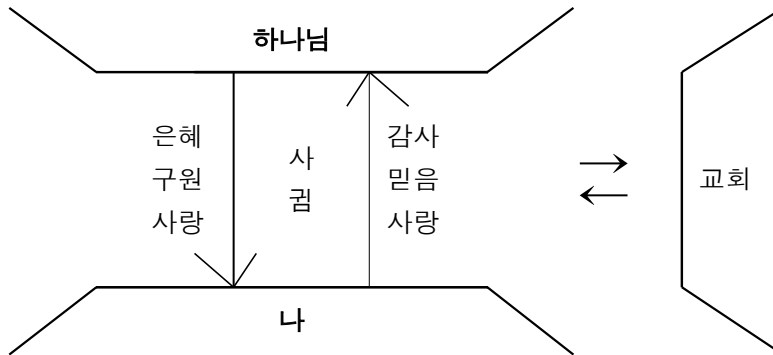
● 왜 교회가 필요한가?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제3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나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같은 경우는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간단한데 교회가 개입되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자녀된 사람들이 나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결혼식이 두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 양가의 만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Family)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편 133편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 십자가의 수평선은 나와 이웃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만나 형제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13~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 교회, 문제가 많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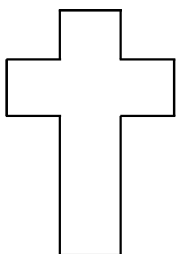
주님을 믿는 동시에 교회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에는 문제가 많지 않나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구원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지만 반면에 죄인들이 모였으니 다툼과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치료중인 환자들의 모임인 셈이죠.

(마태복음 9장11~1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엡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둘째,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교제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인간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공동체가 되면 모든 것에 질서가 생기고 겸손과 사랑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 왜 교회가 중요한가?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의미의 전부인가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에이전시(Agency, 대행업체/대리점)입니다.

가령 밴쿠버 온누리비전교회는 하늘나라의 밴쿠버 대리점이 되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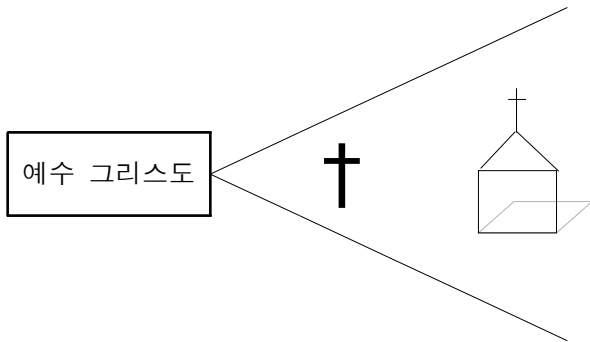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꿈꾸셨고 성령님이 춤추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십자가였고 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18~1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교회

(마태복음 16장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 십자가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비전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죠.

교회의 첫 시작도 오순절 성령강림과 더불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씨앗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산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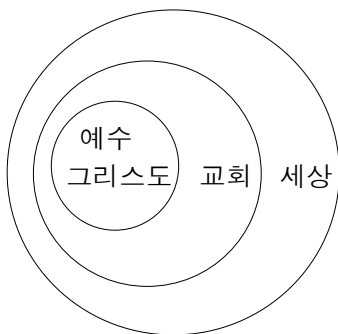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의 파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겸손히 섬기고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 Never-failing Church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시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